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1, 2009. 2, pp. 195-218.

# 장기 정착 새터민의 빈곤특성 연구:*

## 남한 빈곤층과의 비교 고찰

김 연 희+
(대구대학교)
조 영 아
(서울 사이버 대학교)
유 시 은
(연세대학교 통일학 박사수료)

**[요 약]**

본 연구는 장기정착 새터민의 빈곤 문제를 남한빈곤층과 비교를 통하여 빈곤의 규모, 심도, 기여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제3차 새터민 추적조사 자료와 한국사회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새터민의 가구소득은 남한주민의 약 70% 정도로 낮았으나, 빈곤선 200%이상 가구 비율은 남한가구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빈곤선 100%미만은 남한주민의 2배, 절대빈곤선 50%미만 가구의 비율은 남한 비교층의 8배에 달하고 있다. 새터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빈곤을 탈출하는 새터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가 하면 절대빈곤선 이하에 있는 새터민 빈곤층의 빈곤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빈곤결정요인은 연령, 취업가구원수, 건강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새터민 정착지원정책에 대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새터민, 경제적 적응, 빈곤 결정요인

* 이 논문은 2007년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PI-08-001-B0814001)
+ 제 1 저자

## 1. 서론

이주민의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소득과 취업률과 같은 경제지표들이다(Slack, T. 2007). 정책가나 일반인 모두가 갖는 큰 관심 중 하나는 이주민의 새로운 사회에서 경제적 통합에 관한 것이고, 이주민 정착지원정책의 중심도 이들이 새로 정착한 사회에 미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Potocky-Tripodi, 2004:60). 따라서 새터민의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문제 또한 취업이나 소득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안정성의 문제이다(윤덕룡, 강태규, 1997;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2001; 이금순·강신창·김병로·김수암·안혜영·오승렬·윤여상·이우영·임순희·최의철. 2003; 이기영, 2006; 윤덕룡, 2007, 고혜원, 2008).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은 그 영향이 경제문제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수준은 이들의 사회, 심리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령, 2005, 김연희, 2006, 박윤숙, 윤인진, 2007). 외국에서 이주민, 난민에 관한 연구에서도 경제적 적응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적응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Beiser, Johnson & Turner, 1993; Hinton, Tiet, Tran, & Chesney, 1997; Aroian & Norris, 2002). 더욱 중요하게는 이주 첫 세대의 경제적 적응문제가 그 세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빈곤의 다세대 간의 전이라는 장기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터민 일세대의 경제적응은 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이상은, 2008; Slack, 2007).

그 동안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 수준이 열악함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그러한 인식에 따라 그동안 정부 관련부처, 연구자, 정책연구 기관 등에서 새터민의 정착지원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취업훈련과 안정적 직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과 경제적 유인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이우영, 2003; 이금순, 김규륜, 김영윤, 안혜영, 윤여상, 2005; 이금순, 최의철, 임순희, 김수암, 이석, 안혜영, 윤여상, 2004). 그러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새터민의 경제적 통합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터민의 빈곤실태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기존의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 문제는 일반적 적응에 대한 실태조사의 한 부분으로 취업률, 소득, 경제활동의 형태 등을 다루었거나(전우택, 홍창형, 엄진섭, 2003), 새터민의 경제적응의 차이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발견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이기영, 2006, 윤덕룡, 2007, 윤인진, 2007). 위의 선행연구들은 새터민의 취업률, 소득수준, 직업 유형, 경제적 자립에 장애가 되는 개인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정보는 대개 새터민 하위집단 내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그쳤다.

새터민의 빈곤 문제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준거집단과의 비교연구가 있겠다. 다른 빈곤집단과 비교를 통해 새터민 빈곤 문제의 상대적 규모와 심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터민 빈곤과 남한 빈곤층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새터민 빈곤문제가 갖는 고

유한 특성과 다른 빈곤집단과 공유하는 보편적 현상이 있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도 있겠다. 어떤 유사한 점들이 있다면, 새터민을 위한 경제적 적응과 빈곤퇴치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 기존에 시행된 효과적인 빈곤정책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한의 빈곤집단과 다른 새터민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새터민의 특성에 적합한 빈곤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분석 연구결과는 새터민 경제적응을 도모하는 정착지원 정책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장기 정착 새터민의 경제적응을 남한주민, 특히 남한 빈곤층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 1) 새터민의 빈곤연구

새터민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적응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윤덕룡, 강태규, 1997, 윤인진, 1999,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2001; 이금순 외, 2003; 이기영, 2006; 윤덕룡, 2007, 고혜원, 2008). 특히 다양한 적응 영역 중에서 취업과 소득과 같은 경제적응이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적 적응의 한 지표로서 실업율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 중 30-40%(북한이탈주민 후원회, 2001)에서 16.8%(윤여상, 윤인진, 이금순, 안혜영, 서윤환, 엄홍석, 2005)까지 추산하고 있다. 이는 남한 주민 실업율의 5-12배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새터민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단순노무직 등의 불안정한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북한인권정보센터, 2006).

실업율이 높은 만큼 소득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며 특히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하고 있는 개인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1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보수가 98만원으로 남한 근로자 평균임금 171만원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6년-2001년까지 입국한 새터민 중 86.8%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45.6%가 51만-100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으며, 41.3%가 50만원 이하로 보고하고 있어서(이금순 외, 2003) 새터민의 경제적응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새터민의 경제적 상황은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진적인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덕룡, 2007, 윤인진, 2007). 윤덕룡(2007)은 정착기간이 4년 이상과 4년 미만 집단의 비교에서 정규직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4년 이상 거주 집단에서 비정규직과 실업인구의 비율이 낮았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소득은 각각 166만원과 106만원인데, 실업인구와 비정규직자들이 자영업으로 전환되면서 소득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추측하였다.

정착기간에 이어 새터민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중 하나는 건강이라고 하며, 주관적, 객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 2007). 그런가 하면 개인의 성별, 학력이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성별과 교육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경제적 적응수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는가 하면(윤인진, 2007, 김창권, 2007), 북한에서 학력과 남한에서 교육 취득, 성별, 북한에서의 경험/배경이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윤덕룡, 2007, 김창권, 2007). 윤덕룡은 새터민의 내적 성취동기가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내적동기의 지표를 북한에서 당원여부와 군 경험여부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이러한 내적 성취동기가 취업여부와 취업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007).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새터민의 경제적응수준은 소득, 생계지원 의존율, 고용의 형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으로는 건강, 북한 학력, 거주기간, 고용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연구

새로운 정착지에서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특히 난민의 경제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새터민의 경제적응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연구는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이고, 또 다른 유형은 이주민이 정착지에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 패턴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집단들은 이주 초기에 소득이나 취업에서 취약성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현상을 진입효과(entry effect)라고 설명하였다(Hum & Simpson, 2004:53). 이러한 진입효과에 기여하는 요인들로는 언어 · 문화적 차이와 정착국가가 이주민의 자국에서의 경력, 학력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이 지적되었다. 이주민이 주류집단과 외모가 다른 가시적인 소수자 집단(visible minority)일 경우 진입효과는 경제적 통합에 좀 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입효과는 이주민이 정착지에 동화효과(assimilation effect)의 정도에 따라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토착민들과 같은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Chiswick, 1978, Hum and Simpson, 2005에서 재인용).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들로는 교육수준, 거주기간, 가구원수, 정착지의 언어구사능력과 문화적응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lack, 2007; Potocky-Tripodi, 2004; Potocky, 1996; Potocky & McDonald, 1995; Akresh, 2007; Hum & Simpson, 2004). 이주지에서의 교육의 정도는 이주민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착지에서 이전의 교육과 기술의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이 적을수록, 구체적인 목표를 위한 교육에의 투자가 있게 되고 이는 소득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errie, 1996; Chiswick, Lee and Miller,

2003; Rooth and Ekberg, 2006). 정착지에서 거주기간은 소득이나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두 국가 간에 문화적 차이가 적을수록, 교육이나 기술의 이전가능성이 높을수록 본국에서 점하고 있던 경제적 지위로 회복되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Chiswick et al., 2003).

이주과정에서 이주자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는 U자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주 전의 지위와 비교하여 이주 초기에는 직업과 소득 지위에서 하락을 경험하고 정착기간이 지나면서 이주 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U자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U자형 패턴은 본국에서 경제적 지위가 높았을수록, 또 이민자보다는 난민의 경우에 가파른 U자 형태를 보이고, 본국과 이주지 간의 문화적 차이나 교육의 이전가능성이 높거나, 본국에서 가졌던 경제적 지위가 별로 높지 않았을 때 얕은 U자 형태를 보인다고 한다(Chiswick et al., 2003; Rooth and Ekberg, 2006).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이주자와 난민들의 경제적 정착에 자영업과 이주민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Cobas, 1987; Gold, 1992; Sanders and Nee, 1996). 자영업은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언어 장벽, 교육과 기술의 이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류사회에서 고용이 어렵거나 낮은 고용지위(underemployment)를 점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착지에서 경제적 지위의 간격(status gap)을 메워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주민들이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 지위를 성취해가는 과정에는 이주민 지역사회가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유입되는 이주민은 초기에는 이주민 지역사회 내의 열악한 직업을 채우는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취업경험은 이민자 지역사회 내의 적소(niche)를 발견하고 자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며, 이주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본, 정보, 소비자를 동원하여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이주민 난민의 경제적 적응과정을 이주자 집단거주지 모델(ethnic enclave model)이나 소수인종 중계자 모델 (middleman minorities model)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소수민족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 동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Cobas, 1987; Gold, 1992; Sanders and Nee, 1996). 자영업은 이주민이나 난민이 정착지에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흑인이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가는 과정에도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Boyd, 1991). 70-80년대 미국 대도시 거주 흑인의 자영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흑인의 자영업에 대한 의존은 인종차별로 인한 주류사회에서 취업의 기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70년대에 흑인들은 흑인지역사회 안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영업이 주된 경제적 활동 기반이었는데, 인종차별이 완화된 80년대에 공적 영역, 민간 영역에서 취업의 기회의 증가와 자영업에 대한 의존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주나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제한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자영업은 경제적 지위를 취득하는 중요한 경로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 3) 한국사회의 빈곤연구

기존의 빈곤 연구들은 크게 한국 사회의 빈곤의 정도 및 규모와 관련한 연구와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빈곤의 정도 및 규모를 살펴 본 연구들은 최저생계비를 이

용한 절대적 빈곤율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선을 이용한 상대적 빈곤율을 가지고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규모와 기간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비교하였다(최현수 · 류연규, 2003, 석재은, 2004. 구인회 · 손병돈, 2005).

한국 사회의 빈곤상황에 기여하는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은 여성가구세대의 증가와 함께 빈곤의 여성화, 노령화의 추세 속에서 빈곤 노인 가구세대의 증가,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이다. 지난 십년 간 여성 가구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들 여성가구주 세대의 빈곤율도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의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석재은, 2004). 한국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노인층의 빈곤화가 또 다른 사회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현수 · 류연규, 2003, 구인회 · 손병돈, 2005). 여성가구나 빈곤 노인과 같은 전통적인 빈곤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임시 · 일용 ·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도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또 다른 빈곤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현주 외, 2006). 빈곤의 규모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빈곤율을 11.6%에서 16.37%까지 추정하고 있는데, IMF 이후 빈곤의 규모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극빈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빈곤의 심도도 깊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현주 외, 2006, 강신욱 외, 2006, 김교성 · 최영, 2006).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빈곤결정요인으로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관련 특성, 이전소득 관련 특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정진호 외, 2002, 김안나, 2007).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로 선행연구들이 자주 지적하는 변수는 연령, 교육, 성별, 장애 및 만성질환 유무, 취업형태, 고용업종, 고용직종 등이 지적되었다.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가, 노인가구주가 빈곤할 가능성이 높고(석재은, 2004, 김안나, 2007), 만성질환이 빈곤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보여주었다(김안나, 2007). 김교성 · 최영의 연구(2006)는 연령이나 가구원수 변수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인구학적 요인이 빈곤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을 빼고는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련 특성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취업형태,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 수가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지적되었다(김안나, 2007, 김교성, 최영, 2006).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임시직, 자영업 등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호 외, 2002, 김안나, 2007).

## 3.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7년에 실시된 '탈북주민 남한 사회적응 연구'의 제3차 추적연구 자료와, 2006년에 수행된 한국복지패널 조사 2차년도 자료이다.[1] '탈북주민 남한 사회적응 연구'조사는 2001

년도(전우택 등, 2003)와 2004년도(전우택 등, 2006)에 실시한 '탈북주민 남한 사회적응 연구'의 3차 추적연구의 일환으로 2001년도와 2004년 연구에 참여했던 151명 중 추적조사에 성공한 10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1년 당시 연구 대상이 되었던 2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2000년 한 해 동안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총 293명 중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로 2001년에 1차 조사에 참여하였고, 2004년에는 200명 중 15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7년에 제 3차 연구에 참여한 106명이다. 제 3차 연구의 설문에서는 이들 장기정착 새터민들의 사회경제적 적응의 정도를 남한 준거집단과 비교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부 주요변인들의 측정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된 척도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직접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규모와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의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 조사 자료로부터 2단계 층화 집락 추출에 의해 30,000가구를 추출하였고, 이들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 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조사 목적이 복지욕구실태와 경제활동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으므로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oversampling)하여 표본의 50%의 가구를 저소득층에 할당하고, 표본의 50%를 일반가구에 할당하였다(보건사회연구원, 2007). 저소득층 가구의 과대표집을 조정하기 위해 소득층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

### 2) 주요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빈곤여부이며, 빈곤층 여부는 절대 빈곤선 120%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절대빈곤선 120%를 빈곤여부의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사업안내, 2008. 1.). 가구소득이 빈곤선 120% 미만이면 빈곤가구로, 120% 이상이면 비빈곤가구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은 동거가구원의 총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을 모두 더한 것으로 정의한다. 비빈곤 가구를 0으로, 빈곤가구를 1로 코딩하였다.

국내외의 이주민, 난민 연구와 빈곤연구들에서 지적된 빈곤 영향요인들을 근거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독립변수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가구주의 교육수준, 노동특성으로 고용형태와 취업가구원 수를, 신체적 특성으로 주관적 건강만족도 등을 포함시켰다. 가구주 성별 변수는 가변수화 하였고 남성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실 연령과 교육연수란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노동특성으로는 고용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미취업으로 분류하여 가변수화하였고, 정규직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취업가구원 수는 실제 취업가족원 수를 사용하

1) 두 표본의 조사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새터민 표본은 2000년도 입국하고 하나원에서 정착지원 훈훈련을 받은 한 기수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새터민 모집단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였다. 신체적 특성으로 주관적 건강만족도는 실점의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정착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의 정도를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 남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각 집단의 빈곤의 규모와 심도는 어떠한지, 각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동관련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또 두 집단의 빈곤여부 결정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두 집단의 내부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고, 로짓분석을 통하여 두 집단의 빈곤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빈곤여부 결정요인 분석모델은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독립변수들-성별, 연령, 학력[2], 고용형태, 취업가구원 수, 건강만족도 수준-을 포함하여 분석모델이 설정되었다.

## 4.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 (1) 연구대상의 특성

① 인구학적 특성

새터민 추적 연구 3차년도 자료와 1차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새터민 가구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이 41.5%, 남성이 58.5%로, 한국복지패널 가구주 중 남성이 74.8%에 비해 새터민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높다. 새터민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1.3세로 복지패널 응답자의 평균연령 52.0에 비해 약 10년 정도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복지패널 응답자가 11.0년인데 비해 새터민의 교육연한은 12.1년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패널 가구와 새터민의 가구성원의 수는 각각 2.9, 2.8로서 매우 유사한 가구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가구원 수도 각각 1.2명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가구 규모와 동일한 취업 가구원 수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은 복지패널 가구소득이 280만원, 새터민 가구소득이 192만원으로 새터민의 가구 소득은 복지패널 가구소득의 69%, 2005년 인구조사에서 얻어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2%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새터민의 총 교육연한은 북한교육과 남한에서의 교육연수를 합산한 것이다. 남북한의 교육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 응답자의 교육수준의 직접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두 집단 '초등졸', '중졸', '고졸' '인민학교' '고등중학'등과 같은 교육학제 졸업여부에 대한 질문 결과를 교육연수로 전환하여 비교하였다. 교육연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탈출과 제 3국 경유, 남한 학제에 편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퇴와 졸업여부, 남한 교육 재학 시 정확한 학년 등이 엄밀하게 기록되지 않았기에 새터민의 교육연한이 과다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비교

(단위: %)

| 집단 | 총사례수 | | 연령 | 교육 수준 | 가구원 수 | 취업 가구원수 | 월평균 가구소득 |
|---|---|---|---|---|---|---|---|
| 새터민 | 남 | 62(58.5) | 41.3세 | 12.1년 | 2.8명 | 1.2명 | 192만원[3] |
| | 여 | 44(41.5) | | | | | |
| | 총 | 106 | | | | | |
| 복지 패널 주민 | 남 | 4,920(74.8) | 52.0세 | 11.0년 | 2.9명 | 1.2명 | 280만원 |
| | 여 | 1,660(25.2) | | | | | |
| | 총 | 6,580 | | | | | |
| 전국 가구 | 남 | 12,401,908 | 47.9 | 11.6년 | 3.27명 | 1.2명 | 308만원[4] |
| | 여 | 3,485,220 | | | | | |
| | 총 | 15,887,128 | | | | | |

*모든 복지패널자료는 과대표집을 조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② 경제적 특성 비교

두 집단의 고용형태를 비교하여 볼 때,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새터민이 41.5%, 복지패널응답자가 29.9%로 나타났다.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미취업자는 새터민과 복지패널 응답자가 비슷한 29.2%, 27.9%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는 새터민의 10.4%, 남한주민의 21.2%가 종사하고 있어 남한주민이 새터민보다 비정규직 종사자가 2배 많았다. 자영업에는 새터민의 18.9%가, 남한주민의 21.0%가 종사하고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을 비교하여 볼 때, 새터민이 정규직에 고용된 비중이 크긴 하지만, 소득수준은 정규직에 있는 남한주민 소득의 53.2%로 나타났고, 새터민 비정규직 근로자는 남한비교집단의 56.3%에 머물고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새터민의 소득은 남한비교집단의 79.7%로 집단 간 소득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미취업가구의 소득은 남한 미취업 가구의 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고용형태의 비교

| 집단 | | 정규직 | 비정규직 | 자영업 | 미취업 |
|---|---|---|---|---|---|
| 새터민 | % | 41.5% | 10.4% | 18.9% | 29.2% |
| | 월평균소득 | 210만 | 152만 | 252만[5] | 145만 |
| 남한 주민 | % | 29.9% | 21.2% | 21.0% | 27.9% |
| | 월평균소득 | 395만 | 270만 | 316만 | 133만 |

3) 새터민 응답자 106명 중 월 평균 소득 1,500만원 이상인 세 응답자의 소득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은 월 소득 1,5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을 보고하였는데 적은 사례 수에 세 응답자의 소득이 과도한 영향을 미쳐서 평균소득을 과다추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4) 2005년 인구통계 자료는 비교를 위한 또 다른 준거집단 자료로 제시하였다.

5) 자영업자 중 3명의 고소득자(1,500-2,000만원)가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높여서 새터민 자영업자의 소득창출능력을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자영업이 경제적 지위상승의 중요한 통로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표 3〉은 두 집단의 빈곤의 규모를 비교하고 있다. 빈곤, 비빈곤 결정 수준인 절대빈곤선 120% 해당가구를 비교할 때, 새터민의 27.4%가 이 집단에 속하며, 복지패널가구는 18.7%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빈곤율 100%선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새터민의 24.5%가, 복지패널 가구의 12.2%가 절대빈곤선 100%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 가구의 빈곤율이 복지패널 가구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절대빈곤의 50%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극빈곤층을 비교해 볼 때는, 남한 주민 가구의 2%만이 이에 속하는데, 새터민 가구의 17.0%가 이에 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새터민 가구가 심각한 빈곤에 빠져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새터민의 절대빈곤율이 매우 높은 것과 대비되게, 빈곤선 200%이상의 가구는 새터민 가구의 56.6%, 남한주민 가구의 59.5%로 빈곤선 200% 이상의 가구분포는 남한 주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빈곤선 100%이상 200% 미만에 속하는 중간층의 새터민 가구는 19.8%에 비해 남한주민은 27.2%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정착 새터민 가구 중에는 빈곤을 탈피하고 중산층에 진입하는 숫자가 남한가구의 비율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긍정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동시에 남한 정착 7년 후에도 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새터민 가구의 숫자는 남한 빈곤가구에 비해 높으며, 빈곤율의 정도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새터민의 빈곤율이 급격히 높아가는, 즉 새터민 가구의 빈곤의 심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새터민 응답 가구 중 '식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 '신용불량자 가족원의 존재', '단전, 단수의 경험', '난방을 못하는 상황'으로 질문한 극도의 빈곤을 경험한 새터민이 20.8%로 복지패널 가구(7.9%)의 2.5배 정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절대빈곤율에 이어 새터민 가구의 경제상태가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빈곤율 비교

| 구분 | 새터민 | 남한 주민 |
|---|---|---|
| | 빈도 ( %) | 빈도 ( %) |
| 빈곤선 50% 미만 | 18 (17.0) | 129 (2.0) |
| 50-100% 미만 | 8 (7.5) | 669 (10.2) |
| 100-120% 미만 | 3 (2.8) | 430 (6.5) |
| 120-150% 미만 | 10 (9.4) | 553 (8.4) |
| 150-200% 미만 | 7 (6.6) | 807 (12.3) |
| 200% 이상 | 60 (56.6) | 3917 (59.5) |
| 결측치 | 0 (0) | 75 (1.1) |
| 합계 | 106 (100.0) | 6580 (100.0) |

③ 신체 · 심리 · 사회적 특성 비교

새터민 응답자의 33.8%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복지패널 응답자의 40.7%가 만성질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새터민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쁜 것으로 그 동안 보고되었으나 복지패널 가구원보다는 만성질환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패널 가구응답자가 평균

연령에서 약 10년 정도 높다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질환자가 차지하는 숫자는 낮지만 입원일 수에서는 새터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의 건강이 그리 양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 집단 | 빈곤율 | 극빈곤 경험 | 입원일수 | 만성 질환자 |
|---|---|---|---|---|
| 새터민 | 27.4% | 20.8% | 3.58 | 33.8% |
| 남한 주민 | 18.7% | 7.9% | 3.25 | 40.7% |

### 2) 빈곤 · 비빈곤 집단 간 이원분석

새터민과 남한주민을 빈곤, 비빈곤 집단으로 양분하였을 때 집단 간의 특성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인구학적 특성비교

남한주민들은 20대, 30대의 연령층에서는 빈곤층이 매우 적으나 50세 이상의 노인층을 포함하는 연령대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새터민은 빈곤층이 전 연령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이 노인층과 여성가구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남한의 빈곤층과는 달리 새터민들은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과 무관하게 빈곤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장기적 빈곤의 주요 기여요인이며, 남한 빈곤층에 만성질환자가 많이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비해 새터민 중에서 만성질환자는 빈곤, 비빈곤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또 남한주민들 중에는 가구규모가 클수록 빈곤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새터민의 경우 단독가구를 제외하고는 빈곤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비교

| | | 새터민 | | | 남한주민 | | |
|---|---|---|---|---|---|---|---|
| | | 빈곤층 | 비빈곤층 | 전체 | 빈곤층 | 비빈곤층 | 전체 |
| 연령의 4분류 | 20대 | 3 (23.1)<br>10.3% | 10 (76.9)<br>13.0% | 13 (100.0)<br>12.3% | 13 (5.3)<br>1.1% | 234 (94.7)<br>4.4% | 247(100.0)<br>3.1% |
| | 30대 | 9 (22.0)<br>31.0% | 32 (78.0)<br>41.6% | 41(100.0)<br>38.7% | 67 (4.6)<br>4.0% | 1374(95.4)<br>21.7% | 1441(100.0)<br>22.2% |
| | 40대 | 8 (27.6)<br>27.6% | 21(72.4)<br>27.3% | 29(100.0)<br>27.4% | 181 (11.6)<br>14.7% | 1377(88.4)<br>26.1% | 1558(100.0)<br>24.0% |
| | 50대+ | 9 (39.1)<br>31.0% | 14 60.9)<br>18.2% | 23(100.0)<br>21.7% | 967(29.7)<br>78.7% | 2292(70.3)<br>43.4% | 3259(100.0)<br>50.1% |
| | 총합 | 29(27.4)<br>100% | 77(72.6)<br>100% | 106(100.0)<br>100% | 1228(18.9)<br>100% | 5277(81.1)<br>100% | 6508(100.0)<br>100% |
| 총가구원수 | 1 | 6(33.3)<br>20.7% | 12 (66.7)<br>15.6% | 18 (100.0)<br>17.0% | 422(36.9)<br>34.4% | 722(63.1)<br>13.7% | 1144(100.0)<br>17.6% |
| | 2 | 5 (27.8)<br>17.2% | 13 (72.2)<br>16.9% | 18(100.0)<br>17.0% | 434(27.1)<br>35.3% | 1167(72.9)<br>22.1% | 1601(100.0)<br>24.6% |
| | 3 | 12 (27.9)<br>41.4% | 31(72.1)<br>40.3% | 43(100.0)<br>40.6% | 166 (11.8)<br>13.5% | 1245(88.2)<br>23.6% | 1411(100.0)<br>21.7% |
| | 4+ | 6 (14.3)<br>20.7% | 21 (85.7)<br>27.3% | 27 (100.0)<br>25.5% | 207(14.6)<br>16.8% | 2143<br>(85.4)<br>40.6% | 2350(100.0)<br>36.12% |
| | 총합 | 29(27.4)<br>100% | 77(72.6)<br>100% | 106(100.0)<br>100% | 1229(18.9)<br>100% | 5277(81.1)<br>100% | 6506(100.)<br>100% |
| 가구주성별 | 남 | 17 (27.4)<br>58.6% | 45 (72.6)<br>58.4% | 62 (100.0)<br>58.5% | 725 (14.0)<br>59.0% | 4459(86.0)<br>84.5% | 5184(100.0)<br>79.7% |
| | 여 | 12 (27.3)<br>41.4% | 32(72.7)<br>41.6% | 44 (100.0)<br>41.5% | 503(38.1)<br>41.0% | 818 (61.9)<br>15.5 | 1321(100.0)<br>20.3% |
| | 총합 | 29(27.4)<br>100% | 77(72.6)<br>100% | 106(100.0)<br>100% | 1832(27.8)<br>100% | 4748(72.8)<br>100% | 6580(100.0)<br>100% |
| 만성질환유무 | 유 | 11 (29.7)<br>37.9% | 26 (70.3)<br>33.8% | 37(100.0)<br>34.9% | 870(33.0)<br>70.8% | 1769<br>(67.0)<br>33.5% | 2639(100.0)<br>40.6% |
| | 무 | 18 (26.1)<br>62.1% | 51 (73.9)<br>66.2% | 69 (100.0)<br>65.1% | 359 (9.3)<br>29.2% | 3504<br>(90.7)<br>66.5% | 3863(100.0)<br>59.4% |
| | 총합 | 29(27.4)<br>100% | 77(72.6)<br>100% | 106(100)<br>100% | 1229(18.9)<br>100% | 5273(81.1)<br>100% | 6502(100.0)<br>100% |

② 노동관련 특성 비교

취업이 빈곤탈피의 주요 수단임은 새터민, 남한주민 두 집단 모두에서 보여주고 있다. 새터민과 남한주민 모두 빈곤층의 약 절반정도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른 빈곤수준을 볼 때, 남한주민의 경우 정규직 취업자의 2%만이 빈곤상태에 있는 반면 새터민 중에서는 정규직 취업자의 21%가 여전히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들에게 가용한 취업의 기회가 저임금 직종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각 고용형태 별 빈곤율을 볼 때, 남한주민의 경우에는 미취업 가구,

자영업, 비정규직, 정규직의 순서로 빈곤가구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새터민 가구는 미취업 가구, 비정규직, 정규직, 자영업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한주민 가구의 경우 자영업이 미취업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인 반면, 새터민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가장 낮은 고용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른 빈곤비교

| | 새터민 빈도 (%) | | | 남한주민 빈도 (%) | | |
|---|---|---|---|---|---|---|
| | 빈곤층 | 비빈곤층 | 전체 | 빈곤층 | 비빈곤층 | 전체 |
| 정규직 | 9 (20.5)<br>31.0% | 35(79.5)<br>45.5% | 44(100.0)<br>41.5% | 40 (2.1)<br>3.3% | 1880(97.9)<br>36.1% | 1920 (100.0)<br>29.9% |
| 비정규직 | 3 (27.3)<br>10.3% | 8 (72.7)<br>10.4% | 11(100.0)<br>10.4% | 155(11.4)<br>12.7% | 1210 (88.6)<br>23.2% | 1365 (100.0)<br>21.2% |
| 자영업 | 2 (10.2)<br>6.9% | 18 (90.0)<br>23.4% | 20(100.0)<br>18.9% | 236 (17.5)<br>19.3% | 1114 (82.5)<br>21.4% | 1350 (100.0)<br>21.0% |
| 미취업 | 15 (48.4)<br>51.7% | 16 (51.6)<br>20.8% | 31(100.0)<br>29.2% | 792 (44.1)<br>64.8% | 1003 (55.9)<br>19.3% | 1795 (100.0)<br>27.9% |
| 총합 | 29 (27.4)<br>100% | 77(72.6)<br>100% | 106(100%)<br>100% | 1223(19.0)<br>100% | 5207 (81.0)<br>100% | 6430 (100)<br>100% |

③ 심리 · 사회 · 신체적 특성 비교

〈표 7〉은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심리 · 사회 · 신체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낮은 학력이 빈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남한 빈곤층은 비빈곤층 보다 학력이 낮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터민의 경우에는 학력과 빈곤 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기대와 반대로 빈곤층이 비빈곤층 보다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새터민 관련 선행 연구 중 일부는 남 · 북한에서 교육이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가 하면(윤덕룡, 2007), 다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개발된 인적자본이 새터민들의 남한사회에서 사회 · 경제적 적응에 별 차이를 가져다주지 않는다(윤인진,2007, 김창권,2007)는 결과를 보여주어 일관되지 않는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새터민의 인적자본과 빈곤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적응을 하는데 북한에서 취득한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설명은 남한에서 아직도 교육을 받고 있는 새터민들이 학업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증가가 아직 경제적 성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기존의 빈곤연구들과 일관되게 두 집단 모두에서 가구 내 취업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과 남한주민 모두 비빈곤 가구는 1명 이상의 취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비빈곤 가구의 취업원수는 새터민 가구가 남한 주민 비빈곤 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빈곤가구의 취업원수는 새터민 가구의 취업원 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새터민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가족원이 소득창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빈곤 비교

| 구분 | | 평균 | 표준편차 | t값 |
|---|---|---|---|---|
| 교육연한 | | | | |
| 새터민 | 빈곤 | 13.66 | 2.27 | 1.85* |
| | 비빈곤 | 12.75 | 2.21 | |
| 남한주민 | 빈곤 | 7.09 | 5.03 | -37.01*** |
| | 비빈곤 | 11.96 | 4.03 | |
| 가구 내 취업자 수 | | | | |
| 새터민 | 빈곤 | .55 | .51 | -7.49*** |
| | 비빈곤 | 1.43 | .55 | |
| 남한주민 | 빈곤 | .64 | .82 | -27.37*** |
| | 비빈곤 | 1.33 | .81 | |
| 건강 만족도 | | | | |
| 새터민 | 빈곤 | 2.93 | .98 | 1.88* |
| | 비빈곤 | 3.32 | .90 | |
| 남한주민 | 빈곤 | 2.62 | 1.56 | -18.53*** |
| | 비빈곤 | 3.48 | 1.46 | |
| 복지서비스 이용율 | | | | |
| 새터민 | 빈곤 | .96 | 1.42 | 1.88* |
| | 비빈곤 | .51 | .98 | |
| 남한주민 | 빈곤 | 1.37 | 2.14 | 9.22*** |
| | 비빈곤 | .37 | 1.80 | |

p<.001 ***, p<.001 **, p<.05 *

건강만족도는 새터민, 남한 주민 두 집단 모두에게 빈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경제·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율은 빈곤층이 비빈곤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빈곤층은 비빈곤층보다 3배 이상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새터민의 경우에도 빈곤층이 비빈곤층의 약 2배 정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새터민의 빈곤문제가 남한주민보다 더 심각하고, 정착관련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비해 복지서비스 활용 정도는 남한 비교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터민을 위한 서비스자원의 확대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8〉은 새터민이 많이 활용한 서비스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이다. 새터민이 가장 많이 활용한 두 가지 서비스로는 생계비 지원과 학비지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물품지원, 의료서비스가 있었다. 빈곤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생계비 지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놀랍지 않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한사회에서 통합의 중요한 도구인 교육지원이었다. 새터민 집단의 특성상 정신적 외상경험이나 정착과정의 스트레스, 세대 간 문화적 갈등 등으로 인해 개인 및 가족 상담의 필요성이 많을 것

이 예상되지만 상담서비스를 활용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3명에 불구하며, 알코올이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활용한 응답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로는 재정지원과 취업지원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들에게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 통합이 최우선적 관심사임을 보여주었다. 재정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생계비 지원이 가장 많이 활용된 서비스였다는 점과 일관되는 결과이나, 설문응답자 중 취업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1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는 지적은 좀 놀라운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취업상담서비스의 접근성이나 적절성의 문제가 서비스 활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재정지원과 취업지원 다음으로는 주택지원서비스와 북한이나 제 3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도움을 필요한 서비스로 지적하여, 주거환경의 향상과 가족과의 재상봉이 중요한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학교 교육(14 응답자)이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세대의 인적자본 육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 8〉 새터민의 복지서비스 실제 활용과 우선순위 인식 간의 비교

| | | | | | |
|---|---|---|---|---|---|
|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 | 항목 | 생계비 | 학비지원 | 물품 | 의료 |
| | 빈도 | 29 | 24 | 8 | 7 |
| 가장 필요한 서비스 | 항목 | 재정지원 | 취업 | 주택지원 | 북한가족입국 |
| | 빈도 | 28 | 28 | 20 | 19 |

## 2.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빈곤 결정요인 분석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고 비교하기 위해서 로짓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9〉는 가구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빈곤여부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행한 로짓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빈곤여부 결정요인 분석모델의 적합성과 설명력을 보면, 유의수준 .001에서 두 모형 모두 적합하며, 아래의 분석모델로 새터민의 빈곤을 약 65% 설명하고, 남한주민의 빈곤을 37% 정도 설명하고 있어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고용형태, 취업가구원 수, 교육연한, 건강만족도 등 선행연구에서 빈곤 결정요인이라고 지적된 변인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빈곤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에 빈곤의 가능성이 높으며, 취업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 또한 빈곤여부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 자영업, 미취업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터민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 취업가구원 수, 건강만족도의 세 요인만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 가능성이 높으며, 취업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건강만족도가 높을수록 빈곤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가구원 수는 빈곤여부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주의 성별은 빈곤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적응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적되는 교육연한과 고용형태 또한 빈곤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한을 남·북한 교육연한으로 구분하여 로짓분석을 실행하여도 이 변인은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나 이원분석 결과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수준이 다르고, 빈곤율에도 차이가 나타났으나, 로짓분석에서 결과는 이러한 고용형태가 빈곤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새터민과 남한주민의 빈곤결정요인의 로짓분석

| | 새터민 | | | 남한주민 | | |
|---|---|---|---|---|---|---|
| | B | Wald | Exp(B) | B | Wald | Exp(B) |
| 가구주 성 (남성 기준) | -.59 | .53 | .55 | .03 | .12 | .97 |
| 연령 | .08** | 4.93 | 1.07 | .02*** | 19.65 | .99 |
| 취업의 형태 (정규직 기준) | | | | | | |
| 비정규직 | -.01 | .00 | .99 | 1.21*** | 52.00 | 3.36 |
| 자영업 | 1.59 | 2.04 | 4.92 | 1.66*** | 98.29 | 5.23 |
| 미취업 | 2.18 | 2.90 | 8.82 | 1.64*** | 85.48 | 5.17 |
| 취업 가구원 수 | -5.13*** | 14.90 | .00 | -.57*** | 77.78 | 1.80 |
| 교육연한 | .03 | .03 | 1.03 | -.12*** | 156.05 | 1.13 |
| 건강만족도 | -.95* | 5.47 | .39 | -.18*** | 18.63 | 1.12 |
| 상수 | 1.32 | .16 | 3.75 | -3.09*** | 42.86 | .045 |
| 사례 수 | 106 | | | 6468 | | |
| -2LL | 61.37 | | | 4719.33 | | |
| Model $\chi^2$ | 62.38*** | | | 1702.70*** | | |
| Nagelkerke $R^2$ | .65 | | | .37 | | |

*** p<.001, ** p<.01, * p<.05

여러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빈곤 결정요인으로 지적된 교육, 고용형태가 새터민 가구의 빈곤에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이 미치지 않는다는 로짓분석의 결과를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로짓분석에서 사용한 동일한 변인들을 가지고 새터민 가구소득이란 연속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새터민 가구소득의 회귀분석

| 변인 | 표준화 계수 | 유의확률 |
|---|---|---|
| 가구주 성 | -.02 | .81 |
| 연령 | -.18 | .07 |
| 취업의 형태 (정규직 기준) | | |
| 비정규직 | -.05 | .64 |
| 자영업 | .32 | .00 |
| 미취업 | -.17 | .21 |
| 취업가구원 수 | .48 | .00 |
| 북한교육연수 | .17 | .07 |
| 남한교육연수 | -.06 | .54 |
| 건강만족도 | -.03 | .73 |
| 사례 수 | 106 | |
| | F=4.59(df=9)<br>adjusted $R^2$=.24*** | |

새터민 가구소득의 회귀분석 모형은 유의수준 .00에서 유의하였고, 본 회귀모형의 새터민 가구소득에 대한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새터민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연령, 취업형태 중 자영업, 취업가구원수, 북한교육연수로 나타났다. 로짓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연령이 높으면 소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 p=.07). 취업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β=.48, p=.00) 취업원 수와 가구소득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로짓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가구주의 성별이 소득과 무관하다는 결과 또한 로짓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고용형태가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에서는 고용형태가 빈곤여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비정규직, 미취업이란 고용형태는 가구소득과 관계가 없지만 자영업은 소득에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2, p=.00). 이는 기술통계나 이원분석의 결과에서 자영업이 남한가구와의 소득비교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고, 다른 고용형태와 비교할 때 빈곤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남북한 총 교육연한은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 · 북한 교육연한의 영향력을 나누어 살펴 볼 때, 북한에서 교육연한이 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 p=.07). 즉 북한에서 취득된 인적자본이 남한에서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에서 취득한 교육은 소득의 수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취득한 교육연한의 평균값은 .82년이고, 남한에서 교육받은 새터민의 평균교육 연한이 2년이고 편차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남한에서 교육이 소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길지 않아서 일 가능성이 있다.

로짓분석에서 건강만족도는 빈곤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수준 결정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겠다. 첫째, 연령은 빈곤여부의 결정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형태는 빈곤여부에는 유의한 결정요인이 아니지만 자영업이란 고용형태는 소득수준 결정에는 유의미하고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가구원 수는 빈곤여부에도 강력한 결정요인이지만 소득수준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남북한 교육연한을 합산하거나 나누는 어떤 경우에도 빈곤결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득수준과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취득한 교육이 소득수준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만족도는 빈곤여부에는 유의한 결정요인이지만 소득수준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이 이들의 남한사회에의 통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남한에 정착한지 만 7년이 되는 장기정착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상태, 특히 이들의 빈곤문제를, 준거집단이 될 수 있는 남한주민의 경제적 특성과 비교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정착 새터민의 경제적 지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가 하면 빈곤층의 빈곤의 심도는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우려되는 상황이 공존함을 볼 수 있었다:*

남한 사회에서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새터민의 미취업률이 남한 주민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빈곤선 200%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새터민이 반 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 비교집단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새터민의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당수가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또 다른 긍정적인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동안 높은 빈곤율이 새터민의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통합에 큰 장애가 되는 문제로 지적된 것과 일관되게, 본 연구에 참여한 새터민들은 남한에 정착한지 7년이 넘은 장기정착민들에게도 빈곤은 아직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평균 가구소득이 남한주민에 비해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장기정착 새터민 중 빈곤가구의 비율은 남한 주민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빈곤의 심도가 깊을수록 빈곤가구의 비율은 남한주민과 더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터민의 빈곤의 규모와 심도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장기정착 새터민 가구 넷 중 한 가구가 절대빈곤선 100% 미만의 극빈곤층에 속하며, 그 중 상당수가 절대빈곤선 50% 미만의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극빈곤층에 속하는 새터민들은 남한의 빈곤층과 같이 여성가구주, 노령인구,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주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능력이 있는 개인들조차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새터민의 남한사회로의 경제적 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 본 연구의 결과는 새터민의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개선전략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새터민 경제적응 개선 전략을 위한 함의 중 첫 번째는 새터민과 남한 주민 간에는 고용형태에 따른 빈곤이나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남한주민의 고용형태 중 자영업은 가장 빈곤율이 높은데 비해 새터민 집단에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 소득이 가장 높고, 빈곤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개선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는 자영업 부문을 확대시키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이 새터민의 경제적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윤인진, 2007; 윤덕룡, 2007). 이는 또한 이주민이나 난민의 경제적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자영업의 중요성과 기여에 대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Gold, 1992; Yamanaka & McClelland, 1994; Sanders and Nee, 1996). 본 연구의 결과는 새터민의 창업을 지원하였던 정착지원정책이 올바른 경제정착 지원 방향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외국의 이주민이나 난민들의 자영업이 자민족 지역사회 내에 성숙된 물적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자본을 동원하면서 창출된다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새터민 지역사회의 규모와 경제력의 성숙도, 즉 지역사회의 물적,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참여자의 소득을 살펴보았을 때, 자영업을 통해서 상당 수준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새터민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물적자본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새터민 지역사회라는 보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closure in social network) 이들이 새로이 유입되는 새터민들에게 이주 초기에 취업의 기회와 소득원을 제공하면서 점차 창업을 준비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 줄 수 있다면 외국의 이주민이나 난민의 경우와 유사한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정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새터민의 정착지원의 방법으로 관주도의 직업창출도 필요하지만 새터민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갖는 고용창출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하여야 하겠다(Yamanaka & McClelland, 1994; Cobas, 1987; Gold, 1992; Sanders and Nee, 1996).

둘째, 가구 내 취업원 수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새터민의 가장 큰 빈곤결정 요인이며 소득 결정요인은 가구 내 취업원 수인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새터민 빈곤가구의 취업원 수는 비빈곤 가구의 1/3 정도이고, 남한빈곤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새터민 취업지원을 위한 관·민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새터민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소득지원에 이어 취업서비스를 지적한 것도 취업의 기회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동시에 새터민들의 취업 서비스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취업지원서비스의 적절성과 접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따라서, 새터민의 취업욕구와 취업지원서비스 간의 적합성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새터민 가구의 취업원 수를 증대시키려는 기타 전략으로는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훈련을 강화하는 것,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의 강화 등이 필요하겠다. 그 이외에도 앞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가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창업지원을 하여 자영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있겠다. 미국 내 이민 집단 중 이민 1세대 가구 소득이 백인가구 평균소득보다 크게 낮지 않은 이유는

노동집약적 소규모 자영업에 가족원들이 투입되어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amanaka & McClelland, 1994).

셋째, 새터민의 건강문제 개선 전략 또한 경제적 지위 향상에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건강만족도와 빈곤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의 건강문제와 빈곤 간의 긴밀한 관계가 지적되었고, 의료비 부담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것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윤인진, 2007). 새터민의 노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건강문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남한 입국 초기에 의료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기진단을 하도록 하며, 이들의 의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이들의 노동능력을 개선하거나 보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새터민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터민의 의료문제와 이용패턴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을 갖춘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급여 혜택 상실을 우려하여 고용기회가 불안정하다고 생각되면 쉽게 취업이나 소득창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주 초기에 의료급여 혜택을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보장해 줌으로써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빈곤 관련하여 건강의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장애와 만성질환만을 다루고 있는데, 새터민의 특수한 배경을 고려할 때 건강문제는 신체적 질병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심리·정신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을 저해하는 "진입효과"를 완화하고 인적자본을 강화할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규직에 고용되어 있는 새터민의 소득이 비정규직 종사자들과 소득에 있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나, 정규직 종사 새터민 가구의 소득이 남한주민 비교집단과 소득 격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은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두는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 저소득 단순노동 업종에 취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의 교육이 소득창출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결과는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인적자본이 소득향상에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새터민의 남한 내 교육의 정도는 소득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의 평균 교육 연한은 2년이었고, 남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젊은 층이었는데 이들이 탈북과 제3국을 거치는 기간 동안 교육손실을 고려하면 남한에서 2년이란 교육기간은 총 교육연한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빈곤탈피나 소득에 유의한 차이를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외국의 이주민이나 난민의 경제적 정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본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가파른 U자형 적응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 중 본국에서 교육이 정착지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기술 이전성이 낮을 때, 교육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소득증대 효과는 컸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새터민을 위한 교육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새터민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교육이 가능한 이주 첫 세대들에게 정규교육의 기회를 지원함으로 써 남한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터민 2세대의 교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함으로 써 빈곤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겠다.

새터민을 위한 직업 훈련은 새터민의 관심이나 적성과 시장성에 대한 정확한 사정에 근거한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 써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혜원, 2007). 외국 난민의 경제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정착지에서 고용가능성이 있는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investment on destination specific skills)가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iswick, Lee and Miller, 2003).

본 연구는 장기정착 새터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 문제를 남한주민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려는 첫 시도로서 의의를 갖지만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새터민과 남한 주민에 관한 분석 자료가 수집된 시기에 약 12개월 차이가 있어 두 집단 간의 빈곤수준을 비교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남한빈곤집단은 과학적인 표집방법으로 추출되어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새터민 자료는 2000년도 입국자로 표본 대상이 제한되었다는 제한점과 설문참여자의 자기 선택(self-selection)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은 2000년도에 입국하고 하나원을 출소한 새터민의 2/3가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남한에 만 7년 거주한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 실태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물적·사회적 자본 형성과정, 지역사회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새터민의 경제적 적응 간의 관계, 다양한 취업서비스의 경제적 성과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강신욱. 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혜원. 2008.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현황과 과제”. :865-880.

구인회·손병돈. 2005.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한국노년학』 25(4): 35-52.

김교성·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한국사회복지학』 58(2):119-141.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1):193-217.

김안나. 2007.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29:145-168.

김연희. 2006a.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정신보건과사회사업: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22:149-180.

김연희. 2006b. “A study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mental health: an application of stress process theory”.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창권. 200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 『경상논총』 25(2): 15-39.

박윤숙, 윤인진.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124-155.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도 의료급여 사업안내”. http://www.mw.go.kr

보건사회연구원. 2007. “보건복지통계연보”. http://www.kihasa.re.kr/html/jsp/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생활실태”. http://www.dongposarang.or.kr/

북한인권정보센터. 2006. “이산가족 실태조사보고서”. http://www.prism.go.kr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167-194.
윤덕룡. 2007. “경제적 적응상황 분석과 대책”. 정병호・전우택・정진경(편).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 출판부:467-491.
윤덕룡·강태규. 1997.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연세대학교)』 12:169-220.
윤여상・윤인진・이금순・안혜영・서윤환・엄홍석. 2005. “새터민 정착상황 종합 실태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인진. 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3):511-549.
윤인진. 2007.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착지원방안”. 『아세아연구』 50(2): 106-182.
윤인진. 2007. “북한이주민의 건강과 경제적응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제 21집: 65-96.
이금순・강신창・김병로・김수암・안혜영・오승렬・윤여상・이우영・임순희・최의철.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이금순・최의철・임순희・김수암・이석・안혜영・윤여상. 2004.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이금순・김규륜・김영윤・안혜영・윤여상. 200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통일연구원』
이기영. 2006. “북한이주민의 노동시장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문제연구』 18권1호:179-216.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 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53-76.
이우영. 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통일연구원』
이현주 외. 2006.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우택, 홍창형, 엄진섭. 2003. “탈북자들을 통하여 본 북한주민 의식 조사”. 『신경정신의학』 42(5):631-643.
전우택, 윤덕용, 엄진섭. 2003.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7(1):155-208.
정진호 외. 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최현수, 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한국노년학』 23(3):143-160.
Akesh, R. 2007. “U. S. immigrants’ labor market adjustment: additional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earnings growth.” *Demography*, 44(4): 865-881.
Aroian, K. J., Norris, Anne. 2002. “Assessing risk for depression among immigrants at two-year follow-up”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6(6):245-253.
Beiser, M., Johnson, P. J., Turner, R. J. 1993.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depressive affect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Psychological medicine*, 23(3): 731-743.
Boyd, R. 1991. “A contextual analysis of Black self-employment in large metropolitan areas, 1970-1980.” *Social Force*, 70(2):409-429.
Cobas, J. 1987. “Ethnic enclaves and middleman minorities: alternative strategies of immigrant adaptation?” *Social Perspective*, vol.30(2):143-161.
Chiswick, B., Lee, Y. & Miller, P. 2003. “patterns of immigrant occupational attainment in a

longitudinal survey," *International Migration*, Vol.41(4): 47-69.

Ferrie, J. P. Ferrie, A. 1996. new sample of males linked from the public use microdata sample of the 1850 US federal census of population to the 1860 US federal census, *Hist. Methods* 29(1): 41 - 156.

Gold, S.. 1992. "The employment potential of refugee entrepreneurship: Soviet jews and Vietnamese in California," *Policy Studies Review*, 11(2): 176-186.

Hinton, L., Tiet, Q., Tran, C. & Chesney, M. 1997.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refugees from Vietnam: a longitudinal study of new arrival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 39-45.

Hum, D. and W. Simpson. 2005. "Economic assimilation of Canadian immigrants: cross-sectional vs. panel data estimates" Research report to prairie center of excellence for research o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Hum, D. and W. Simpson 2004. "Economic integration of immigrants to Canada: a short survey."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13(1): 46-61.

Potocky-Tripodi, M. 2004.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immigrant and refugee economic adapta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1(1): 59-91.

Potocky, M. T. McDonald. 1995. "Predictors of economic status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mplications for service improvement." *Social Work Research*, 19(4): 219-228.

Potocky, M. 1996. "Toward a new definition of refugee economic integra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39(3): 245-256.

Rooth, D. & Ekberg, J. 2006. "Occupational mobility for immigrants in Sweden," International Migration, vol.44(2):57-77.

Sanders, J. M. and Nee V. 1996. Immigrant Self-Employment: The Family as Social Capital and the Value of Human Capita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231-249.

Slack, T. 2007. "Underemployment across immigrant gener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36(4): 1415-1430.

Yamanaka, K. & McClelland, K. 1994. "Earning the model-minority image: diverse strategies of economic adaptation by Asian-American women." *Ethnic and Racial Studies* 17(1):79-114.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of North Korean Settlers: A Comparison with the South Korean Poor

**Kim, Yeun Hee**
(Daegu University)
**Cho, Young A**
(Seoul Cyber University)
**Yoo, Si-Eu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poverty among North Korean settlers in Korea in terms of its magnitude, the severity, and its determinants by comparing it with the South Korean poor. The data used for this analysis were the second Korean Social Welfare panel data for the South Koreans and the third longitudinal study on North Korean settlers in the South.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of the North Korean settlers reached about 70% of the South Korean counterparts. The percentage of the North Korean households that earn 200% of the poverty line was about the same as the South Koreans, which indicates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tatus of the long-term settlers in the South. However, the North Korean settlers below 100% of the poverty line were twice as much , and those under 50% of the poverty line were 8 times more than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Despite the improved economic status of the long-term North Korean settlers in the South, those who still live below the poverty line tend to remain in poverty, which is chronic and severe. The determinants of the North Korean settlers' poverty were identified as 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 employment, alcohol problem and health satisfaction level.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conclusion.

[논문 접수일 : 2008년 9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1월 19일]